

'3훅' 지역 중기 "시한폭탄 안고 산다"

원자재값 상승에 매출 떨어지는데 대출금리 올라 상환 부담 늘어 대출 문턱 높아져 추가 대출도 어려워 자금난까지... 줄도산 우려

"적자로 돌아서 가뜰이나 어려운데 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 매달 버티기가 힘듭니다.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니 추가 대출도 어려워 막막하네요." 광주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을 받았다.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4.5%의 금리로 4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대출금리는 6.5%까지 오르게 됐다. 2%의 금리가 오르면서 매달 상환하던 이자가 200만원에서 280만원 치솟는다. A씨는 "매출은 떨어지는데,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으로 영업이익률은 그야말로 추락하고 있다"며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고정비 지출 부담이 너무 커졌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추가 대출도 받기 어려워 인건비 주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유통회사 대표 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는 얼마 전 신규 사업장 구축과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9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았다. B씨가 받은 대출의 금

리는 5.7%다. 10년 상환으로 3년간 이자만 납부하는 조건이다. 그가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금만 427만원이다. 3년 뒤에는 원금 625만원도 함께 상환해야 한다. B씨는 "소비가 위축되면서 유통업계의 업황은 악화하는데 대출 이자까지 허리가 된다"며 "예전이면 3%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6%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여기서 금리가 또 오르면 정말 답이 없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이 1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고금리·고환율·고불가 등 '3고' 시대 지역 중소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 대출을 받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치솟은 금리로 기업들의 상환 부담은 커지자 중소기업의 채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대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자금난까지 겹친 지역기업

들이 자칫 줄도산할 수 있다는 불안도 팽배하다. 1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여신 자료를 보면 지역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신규 대출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조10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669억원에 비해 19.33%(3416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 제2금융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여신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1-8월 누적 신규 대출은 3조2157억원으로, 전년(2조5389억)보다 무려 26.66%(6768억원)이나 늘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모두 더하면 올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1조184억원의 대출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중소기업들은 많아지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자금 경색으로 기업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파악한 지난 9월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7%다. 이는 2개월 전으로 최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5% 후반에서 6%대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도 약제지만, 시중은행들이 4분기 들어 기업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지

역 중소기업들이 자금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돈 줄이 막히면서 코로나19 이후 빛으로 버티던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위기가감이 확산하는 이유기도 하다.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부실기업 우려가 확산,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PF 부실 우려로 채권시장마저 경색되자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들의 대출 수요도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기업대출 규모를 관리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기업대출 담당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을 관리하고자 심사를 강화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과 달리 그렇지 못한 지역의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대출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기업들의 '흑자 도산' 가능성도 있다. 지역 기업들의 체력이 바닥나기 전 숨통을 트워 줄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저신용→중신용 경계 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옛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 폭이 넓어졌다. 또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만 해당하던 대환대상 채무가 은행권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실시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당 3000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환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2개 은행 중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전남지역 여성벤처인들이 '자랑스러운 여성벤처인' 표창을 수상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선 대표, 김현화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 김분희 메세인터내셔널 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위지연 회장, 박옥희 대표.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제공>

전남 여성벤처인들 '자랑스러운 여성벤처인' 표창

김미선 아라움 대표·박옥희 주영테크 대표 수상

전남지역 여성벤처인들이 '자랑스러운 여성벤처인' 표창을 수상했다. 9일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주관하는 '2022 여성벤처 주간행사' 개막식에서 전남지역 기업인 김미선(아라움 대표)과 박옥희(주영테크 대표)가 '2022 자랑스러운 여성벤처인' 표창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여성벤처인'은 여성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및 발전에 모범이 된 여성 벤처기업 대표

를 선정해 수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은 김미선(아라움 대표)은 튀김식품과 조미건어포류를 생산,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옥희(주영테크 대표)는 전복양식 기자재와 해상 부유 구조물 제조업체로, 현지 특화기술개발을

통해 전복양식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것과 우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책임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조달청장상을 받았다. 위지연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장은 "우수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여성벤처인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지역 내 많은 여성벤처기업이 지속적인 경영과 성장을 통해 을 발굴 및 시상하고, 기업의 지속경영 및 성장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확대

광주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이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고금리·고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지원하는 가입장려금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은 연 매출 3억원 이

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가입 시 적립돼 공제금 수령 시 지급 된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대책의 하나로 지난 7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월1만원에서 2만원(최대12개월)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폐업·노령 등 생계위험 발생 시 납입한 부금과 함께 연복리 이자를 받는다. 또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 다양한 복지혜택 등 장점이 있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이번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확대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LH 광주전남본부, 공공임대주택 하자 점검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분양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하자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의 하자처리는 입주자의 하자처리 요청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등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받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하자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럴 경우 사소한 하자가 방치돼 더 악화하거나, 필요한 보수를 받지 못한 채 분양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직접 하자를 접수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하자처리 서비스'를 시행, 별도의 하자접수 없이 LH에서 직접 방문점검을 진행하고 하자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공공임대주택 6개

단지, 4366세대 입주민 중 하자접수 이력이 없는 세대다. 총 64세대가 이번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11월 중 세대방문을 통해 누수·곰팡이·불량 및 노후로 인한 시설사용 지장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연내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재경 LH 광주전남본부장은 "먼저 찾아가는 하자처리 서비스를 통해 하자처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입주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주식투자액 감소...거래량은 늘어

10월 4조374억 거래...전달비 17.3% 줄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주식 투자 감소세가 전국 평균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10월 주식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은 4조374억원으로, 전달(4조8841억원)보다 17.3%(-8467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국 주식 거래대금 감소율 11.4%를 웃도는 수치다. 단 주식 거래량은 5억4129만주에서 5억6580만주로, 한 달 사이 4.5%(2451만주)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은 9월 2조6200억원에서 지난달 2조2100억원으로 15.7% 줄었고, 같은 기간 코스닥 대금은 2조2500억원에서 1조8100억원으로 19.6% 감소했다. 전국 주식 거래대금은 코스피는 6.7% 전달보다 줄고, 코스닥은 19.7% 감소했다. 광주·전남 상장법인 38개사(코스피 16개사·코스닥 22개사) 시가총액은 지난달 17조4692억원

으로, 전달(19조8015억원)보다 11.8%(-2조3323억원) 줄었다. 코스피 시총은 전달보다 13.0%(-2조3054억원) 감소했고, 코스닥은 1.3%(-269억원) 줄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이나믹디자인 시총이 169.9%(525억원↑) 뛰고 DSR제강 11.2%(65억원), 다스코 10.4%(93억원)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금호건설 시총은 한 달 새 521억원(-18.9%) 사라지고, 한국전력(-16.7%), 한전 KPS(-8.1%) 등은 줄었다. 코스닥에서는 서암기계공업(16.4%·103억원↑), 서산(14.9%), 남화토건(12.1%) 등이 시총이 늘었다. 우리로 시총은 12.2%(-46억원) 줄고 박셀바이오(-10.1%), 에니젠(-6.5%) 등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

위니아, 광주 사랑의열매에 김장김치 2t 기부

위니아는 10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김장김치 2000kg을 전달했다. (사진) 광주에 생산 공장을 둔 위니아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전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 5번째 김치를 후원하고 있다. 단체식품이 생산한 '건강담은 김치' 2000kg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노인복지시설협회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상덕 위니아 광주공장은 "위니아의 작은 나눔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니아는 광주지역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니아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다. 광주공장 임직원들은 2017년부터 매년 2회 이상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운동을 진행, 지난해 1월에

17일부터 우유값 5~10% 오른다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마시는 우유 제품 가격이 오른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표 제품인 흰 우유 1l 가격은 6.6% 인상돼 대형마트 판매 가격이 271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다.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 가격을 출고가 기준으로 평균 8% 올리고 가공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7% 인상한다. 동원F&B도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빙그레도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900ml짜리 흰 우유 제품 가격을 2610원에서 2860원으로 9.6% 인상하기로 했다 고 전달 밝혔다.

유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낙농진흥회는 이날 3일 원유 기본가격을 1당 49원씩 올리기로 했고, 올해의 경우 원유가격 인상이 늦게 결정된 점을 고려해 1당 3원씩을 추가로 지급해 실질적으로는 1당 52원 인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2.23(-22.18)
↓ 코스닥	707.78(-6.82)
↓ 금리(국고채 3년)	4.033(-0.053)
↑ 환율(USD)	1377.50(+12.70)